



3년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위 활동 본격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음 5월 28일) 제35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향후 2년, 학력 신장에 집중”

서거석 교육감, 취임 2주년

▶ 관련기사 16편

IB 프로그램, 과학 등 육성
초등 총괄평가 구상 밝혀

“지난 2년간 전북교육
대 전환 기틀 다져” 소회

“향후 2년, 학력 신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간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다”면서 “이제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며 “사교육 걱정 없이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히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 신장을 위해 서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확산, 초등 학교 학년 단위 총괄평가 시행,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IB 프로그램 운영이 채 1년이 안 됐는데도 전북에서 처음으로 IB 후보학교가 나왔다”면서 “현재 28개교인 IB 관심학교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 익산, 남원, 진안 등 권역별로 수확센터 설립하고, 익산의 과학교육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과학 체험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8년 만에 시행되는 초등학교 학년 단위 총괄평가에 대해 “정확한 학력 진단이 있어야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등수는 매기지 않고 등급만 매겨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알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학교업무지원센터 지원 인력을 41명에서 107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 전담 변호사를 2명 채용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고, 전주와 군산, 익산에 4명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진로·진학 콘서트를 확대하고, 본청과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진학상담실을 구축해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지난 2년의 성과로 △미래교육 △기초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인권 균형과 조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 등을 꼽았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고, AI와 챗GPT가 수업에 활용된다”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려 여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미래학교 운영, 미래교실 환경 구축, 수업혁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초3부터 고3까지 2년에 걸쳐 보내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스마트철관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했는데, 놀랍게도 9개월

만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초등학생은 65.9%, 중학생은 36.9%, 고등학생은 30.5% 감소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선정, 부안과 순창에 학교복합시설 선정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도 결실을 거뒀다고 평했다.

서 교육감은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전반기에 세운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안착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 교육감은 일부 교원단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북교육청은 언제나 단체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천막을 거두고 당장 테이블로 나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정부여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성을 길러주고 있다”며 “승진 가점은 아니더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금액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노사는 올해 심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날을 세워왔다.

한편,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으나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뉴시스

성일하이텍 소성로공장 사용승인 허가

전기차 30만대 추가 공급 규모 가동 가능해져

새만금청 “새만금 사업 선도적인 역할 해달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내 이차전지 원료를 제조하는 성일하이텍(주)의 소성로공장 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성일하이텍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제1공장(2008년 준공)과 제2공장(2020년 준공)을 가동하면서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10만 대의 이차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를 제조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 준공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제3공장과 이번에 사용승인한 소성로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30만 대에 대한 이차전지 원료(코발트·니켈·리튬 등)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게 된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를 추출해 이차전지 생산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이며,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이차전지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이차전지 원료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자원 선순환 및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새만금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운영 과정에서도 애로가 없도록 건축 관련 행정서비스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창업기업 투자 상호 협력

전북자치도-KDB산은, 모빌리티·바이오헬스 등 주제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오늘까지 공동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광영)는 KDB산업은행(회장 김석훈)과 함께 2일과 3일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관련사진 2면)

넥스트라운드는 지난 2016년 KDB산업은행이 만든 벤처·스타트업 대상 기업설명회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사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행사 첫날은 미래 모빌리티, 둘째 날은 바이오헬스케어를 주제로 이들 동안 전북지역 창업생태계 토론회와 총 10개의 전북의 유망 창업기업 투자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첫날에는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도내 지역 편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5개 기업의 투자유치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 기업으로 △이차전지 복합 음극 소재를 개발하는 데카머트리얼즈(임청하 대표) △폴드체인 특화 전기 트럭차를 제조 및 운영하는 이브이솔루션(민원기 대표) △충전기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인 아론(남재현 대표) △배터리 유가금속 회수 용매추출

제를 개발하는 코솔러스(김성현 대표) △그린수소 생산장치 및 고압액체수소 저장용기를 개발하는 아헤스(이중희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5개 유망 창업기업이 발표에 나선다. 바이엘티(강상민 대표), 플라스 바이오(박성걸 대표), 카이바이오텍(김영덕 대표), 나디안바이오(소홍섭 대표), 국민바이오(성문희) 등이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김광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성장한 성일하이텍과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과감한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KDB산업은행과 2022년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400억 규모의 벤처펀드를 공동 조성하는가 하면, 2023년에는 2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맺고 정책금융기관·정부·지자체 간의 성공적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제2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후반기 출범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